

2024 년 3 월 24 일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향하신 길”(마 21:1-11)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들어가신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으셨는지를 보며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겠습니다.

[1] 왕의 죽음

v.7-8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겔옷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그 위를 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니다. 구약에서 왕이 행차할 때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호산나(= 구하여 주십시오)를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므로 세상 권력에 관심이 아닌 사랑의 참 다스림에 초점을 두십니다. 이제 사랑의 통치를 위해 죽음을 필수로 여기시며 그 때가 왔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본문 21 장 이후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할 것과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적대적인 대제사장, 장로 등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의연함으로 가득하십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슬픔, 분노, 억울함 등을 동반한 강렬한 긴장감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

히 2:14-15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두 가지 목적, 즉,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로 인해 종 노릇하는 사람들(우리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 2:9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부활)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죽어야 살고, 또 반대로 살아야 죽습니다. 오늘의 강조점은 잘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 죽음은 삶의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다

사람은 죽음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원인에 관심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는 죽음을 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살아낸 결과로 의미 있다는 관점을 가지면, 죽음은 삶에서 뗄 수가 없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오늘을 잘 살자'라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3] 사랑이 죽음의 해답

고난 주간 중 주님의 모습은 일관된 사랑이었습니다. 늘 사랑의 진리에 붙들리시고, 진리를 가르치셔서 사람들이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주어진 삶을 겪으셨습니다.

곧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랑하면 죽음의 귀한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랑에 더욱 끌립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내적 현상은 성경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16). 그러면 인간은 본래 사랑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종합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고향으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도 죽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되었듯이 말입니다(요 14:1-4).

죽음은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던져줍니다. 이런 사랑의 존재로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죽을 것을 알고 행보하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모습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해 보세요.
2. 나는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과 나의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